# 자연葬 개장 두달 '극과 극'

## 인천 40기 안치… 광주 全無

광주시립 영락공원에 자연장(自然葬)을 할 수 있는 '청마루동산'이 조성돼 지난 달 1일부터 안장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안장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개장한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지의 경우 이미 40기가 안치돼 시민들의 호응도가 크게 달랐다.

■2007년 시·도별 화장률

| 순위 | 지역 | 화장률(%) |
|---|---|---|
| 1 | 부산 | 79.9 |
| 2 | 인천 | 73.6 |
| 3 | 서울 | 70.2 |
| 4 | 울산 | 69.2 |
| 5 | 경남 | 65.3 |
| 6 | 경기 | 65.3 |
| 7 | 대구 | 59.3 |
| 8 | 대전 | 56.3 |
| 9 | 강원 | 54.3 |
| 10 | 광주 | 50.1 |
| 11 | 전북 | 46.2 |
| 12 | 경북 | 45.8 |
| 13 | 제주 | 41.0 |
| 14 | 충남 | 38.3 |
| 15 | 충북 | 37.9 |
| 16 | 전남 | 35.7 |

같은 공설 자연장 묘지이지만 인천의 경우 화장한 골분(骨粉·뼈가루)을 큰 나무 주변에 묻는 수목장 방식인 반면, 광주 청마루동산은 잔디나 화초 아래 묻는 정원장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영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시가 자연장 시범사업으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 조성한 '청마루동산'이 지난 7월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이용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곳에 안치된 유골은 없다.

청마루 동산은 8천700㎡ 규모로 정원장, 잔디장, 가족장 등 테마별로 구성됐으며 1만5천 위(位)를 안치할 수 있다. 잔디나 화초로 꾸며진 지면 아래 30㎝에 화장한 골분을 묻는 정원형으로 사용료는 1기당 34만8천원, 사용기간은 일반 분묘나 봉안당(납골당)과 같은 45년이다.

반면 지난달 4일부터 신청을 받은 인천가족공원내 자연장지에는 현재까지 40기가 안치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광주와 달리 화장한 뼈가루를 나무 주변에 묻는 수목장림으로 조성된 인천가족공원내 자연장지는 2만6천31㎡ 규모로 9천500위를 안치할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 시민들의 자연장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조상의 묘를 옮기면서 유골을 화장한 경우 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장 수요까지 수용할 경우 자연장지가 금세 포화상태가 될 우려가 높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연장에 대한 양 지역의 호응도가 다른 것은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화장률에 따르면 광주는 50.1%로 16개 시·도 중 10위(7대 도시 중 최하위), 전남은 35.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화장 증가율이 4.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아직 전국 평균치(58.9%)와는 거리가 있다. 인천은 무려 73.6%에 달했다.

### 화장률 광주 50%, 인천 73.6%

### 장례문화 인식차에 호응도 달라

이에 따라 영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중 현재 조상의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연장 이장 의향을 조사, 30여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영락공원의 경우 수목장을 조성할 상수리·굴참나무 등 아름드리 나무가 없어 정원장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행 봉안당은 시설이 너무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자연장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4곳 가운데 광주와 인천은 지난달 이미 개장했고, 수원(연화장)은 다음달 완공될 예정이며 서울(서울시립묘지)은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서 가짜 쓰레기 봉투 판매

### 마트 2곳 적발… 광산경찰, 유통 조직 여부 수사

광주의 한 소형 마트에서 일선 지자체에서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유통 조직이 확인될 경우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광산구청은 지난 19일 광산구 신창동·첨단동의 모 마트 2곳이 구청에서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구청장 명의로 광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산구는 관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670곳 중 최근 판매 실적이 뚝 떨어진 마트 2곳을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하던 중 이들 마트에서 판매되는 종량제봉투가 구청에서 공급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의 종량제봉투는 20ℓ 짜리를 비롯한 30ℓ, 50ℓ, 100ℓ 등 모두 네 종류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판매금액만도 1천만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종량제봉투 겉 표면에 적힌 글자체와 봉투색깔(분홍색), 직인도 구청에서 발행된 것과 거의 유사해 일반 주민들이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조직적인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망이 확인될 경우 광주시내 전 지역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규모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발행된 것과 글자체가 약간 다르다. 현재로선 이 봉투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말할 순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산구청장 명의로 고발장만 접수됐을 뿐 광산구청으로부터 증거물인 종량제봉투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다"며 "이번 주부터 광산구청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화꽃 피었네** 21일 곡성군 겸면 목화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새하얀 솜털처럼 만개한 목화꽃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제7회 겸면 목화축제'는 1만5천㎡의 목화밭에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KTF 조영주 사장 영장

KTF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1일 협력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KTF 조영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6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중계기를 납품하는 B사의 실제 사주 전모(구속)씨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나운찬 〈7608〉 김종두

## 몸 아픈 어머니 장사 말리다 분신 소동

쌍나팔

○…30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장사를 나간 어머니 가게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한바탕 소동.

○…21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아들 박모(33)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42분께 보성군 득량면 어머니 선모(69)씨의 반찬 가게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고 건물 외벽을 태우는 등 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

○…이 불로 박씨와 박씨 주변에 있던 형수 A모(34)씨와 조카 B모(4)군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경찰은 박씨가 "몸이 아픈 어머니가 무리해서 장사를 한다"며 이를 말리던 중 홧김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살인 사건 피의자와 함께 도박

## 순천시 간부 공무원 2명 입건

순천에서 발생한 도박 관련 살인사건〈본보 20일자 3면〉을 수사중인 순천경찰은 21일 사건 당일 도박장에서 피의자 박모(57)씨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순천시청 K·S 과장 등 2명의 공무원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순천시 연향동 J광고사 사무실에서 점당 500~2천원씩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살인사건 피의자 박씨의 주변 사람들이 이들 공무원에게 박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을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 기자 ejkim@

##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장모(43) 경사는 전날 오후 5시께 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장 경사는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알려졌다. .

/목포=이상휴기자 lsh@

## 부부싸움 홧김 생후 10일된 아들 살해

광주동부경찰은 21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생후 10일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김모(여·28)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집을 나가자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손목 등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갑자기 화기 치밀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지난 새댁이며, 정신과 치료경력 등 특이할 만한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